

'94 건강관리 공개강좌 개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가 '94년도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개시했다. 오는 3월 10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매월 2째, 4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될 이 공개강좌는, 월별로 지역 구민회관 등을 이용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보건 의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공개강좌에서는 질병 분야별 강의와 함께 건강상담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건협 부산지부에서도 3월 10일 공개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외의 지

건협 서울·부산지부, 3월 강좌 오는 10일부터

부에서도 4월 보건의 달부터 강좌 개설을 계획 중에 있다.

서울·부산지부의 구체적인 강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

- 3월 10일 (목) 오후 2시~4시
-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
- 위암(여의도 성모병원 내과 선
회식 교수)

- 3월 24일 (목) 오후 2시~4시
-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
- 간암(한강성심병원 일반외과 최
원진 교수)

〈부산지부〉

- 3월 10일 (목) 오후 2시
- 부산일보사 대강당
- 뇌졸중 예방과 관리(동아의대
신경과 김재우 교수)

도내 결핵관리 요원 교육

경상남도 주관, 건협 경남지부서 열려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결핵관리요원교육이 지난 1월 28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홍보관에서 있었다.

'94년도 결핵관리사업 지도 및 효율적 환자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던 이번 교육에는 시·군 보건소의 결핵관리요원 50여명이 참석했다.



AIDS 상담 전문가 육성해야

지난 2월 4일, AIDS 워킹서 지적

“AIDS 예방 관리사업 추진 현황 분석과 전략 개발에 관한 워킹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지난 2월 4일, 연구원 강당에서 있었다.

보건사회부와 WHO(세계보건기구)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워킹서에는, 이성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동모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Dr Rabin M. Sarda WHO 서태평양지역 에이즈 자문관, 이시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권관우 에이즈연맹 본부장, 김상인 중앙길병원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 단체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성우 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워킹서는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관리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향후 구체적인 전략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된다.』면서, 『최근 발족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들 단체들의 활발한 AIDS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며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킹서에서는 또, 주경식 보건사회부 차관의 치사, 한상태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한국의 AIDS 예방관리 현황과 AIDS의 예방을 위한 세계적 협조·지원체계 등에 관련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있었던 주제별 분과토의에서는 AIDS 예방교육 및 홍보전략, 수혈 및 혈액제제 관리를 통한 AIDS 예방전략, AIDS 감염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전략, AIDS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조직 강화와 민간단체 육성전략 등 AIDS 예방을 위한 전략들이 다각도로 논의되어졌다.

이 분과별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AIDS 예방 홍보의 실정은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이며 상담 전문가의 육성, 언론매체 시행자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정보 전달의 수준 향상과 함께 AIDS 위험 집단이나 청소년 대상의 집중적인 성교육과 AIDS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신체 검사 항목에 AIDS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된 주요내용은 앞으로 보사부 및 정부에 건의되어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건협에서는 정병교 홍보부장이 워킹서에 참석해 AIDS 예방 교육 및 홍보 전략에 관한 분과토의에 참여했다.